

□□□ □□ □□, □□□□ □□ - □□□□ □□□
□□□ □□□!□

2016 문화사랑방 예술무대 5월 공연

마르지 않는 발언, 계속되는 연극 심포지엄 “포럼연극에 묻는다!”

- 참여적 연극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 가능성 -

일시_ 2016년 5월13일(금) 오후 7시 | 장소_ 부평문화사랑방

주최_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사랑방은 지난 3년간 지역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성찰을 이뤄낸 포럼 연극을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포럼연극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소통의 장으로서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토론의 실효성과 지역 주민의 삶 속에 포럼연극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는 이런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발제 1 { 포럼연극의 이해 및 흐름
발제_ 김병주(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발제 2 { 포럼의 지역사회의 확장 가능성
- 대상을 중심으로 - 발제_ 김현정(극단 해 부대표)
- 지역을 중심으로 - 발제_ 원성원(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대표)

참여토론가 -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_ 이혜경
인천여성의전화 사무국장_ 손미선 외



포럼연극의 창시자 (아우구스토보알)은 무대 위 토론연극은 해결책을 내는 것보다 좋은 논쟁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며 관객과 배우가 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억압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는 토론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 □□□□□ □□□□.

□□□□□ □□ □□□□ □□□□ □□ □□□ □□□□, □□□□ □□□ □□□. □□ 5□ 26~28□ □□ □□□ □□ □□□ □□□□□□□ □□ <□□□□ □(An Enemy of the Peop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